

수해지역 자원봉사 활동 실시



대전광역시지부(지부장 윤응중)는 지난 8월 1~2일(2일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대를 회원 20여명과 함께 수해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보일러 무상 점검 10여대, 파손

가옥수리 5채, 파손도로 복구 2개 비닐하우스 보수 5개 동과 가옥 산사태 2곳을 정비하고 보수하면서 비지땀을 흘렸다.

윤지부장은 “우리 협회가 지역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 지부도 발 벗고 나섰다”며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몸으로 실천하려니 체력의 부담을 느꼈지만 피해주민들의 환한 미소를 보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수해지역 자원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이번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 가자고 이구동성으로 하였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복구하는데 막막했는데 보일러 설비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인하여 복구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였다.